

해방 직전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과 미국 정부의 대응*

鄭容郁**

-
- I. 머리말
 - II. 한인단체 통합운동과 미국 측 대응
 - III. 재미 한인의 대미외교와 미국 정부의 입장
 - IV. 재미 한인을 활용한 미국의 대일 군사활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제 식민지기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국외 독립운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해방에 대한 한국인들의 주체적 대응을 연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미주의 한인 독립운동은 한반도와의 공간적 격리로 인해 직접 일제와 맞서지는 않았지만 식민지기 전기간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자금 조달, 외교적 후원 등의 측면에서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미주의 한인단체들은 중경 임정을 재정적으로 원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임정 승인외교를 적극 펼쳤다. 또 미군 전략공작처(OSS)의 냅코(NAPKO) 작전에서 보듯이 미군에게 인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대일전을 원조하였다.

해방 직전 재미한인독립운동의 위상과 역사적 역할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 이 논문은 1998 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현대사

이 시기 재미한인독립운동의 전개양상,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재미 한인독립운동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의 독립운동은 주재국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대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주의 독립운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해방 직전 미주 한인독립운동의 동향을 한인단체들의 통합운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재미 한인독립운동과 미국의 관계를 한인단체들의 임정 승인 외교와 대일 전 지원 노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한인단체 통합운동과 미국 측 대응

1. 중일전쟁 발발 이후 한인단체들의 통합운동

미주 한인독립운동의 기원은 일본의 한국 강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체의 역사 속에서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였다.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지도자의 노선과 성향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분화 양상을 보였다. 초창기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로는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을 꼽을 수 있다.¹⁾ 고려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의 노선은 각각 실력양성노선, 무력투쟁노선, 외교노선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또 각각 흥사단, 국민군단, 동지회라는 조직기반과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3·1 운동 전후로 일시 고양되었던 미주 한인독립운동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세가 진정됨에 따라 침체상태로 접어들었다.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군축회의를 활용하여 한국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좌절된 뒤 193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3·1 운동 이후 박용만이 연해주 지역과 중국으로 활동의 중심을 옮겼고, 안창호 역시 1920년대 이후 중국을 활동 본거지로 하였으므로 초창기 지도자 가운데에서 이승만이 미주 한인 사회에 남은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 시

1) 1940년대 이전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캘리포니아 리들리(1959) 및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 아시아문화사(1989) 참고

기 미주 한인사회에 상처를 남겼다. 미국 내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로 하와이와 서부 연안지역을 꼽을 수 있는데 서부 연안지역에서는 안창호를 지지하던 국민회계가 세력이 컸고, 하와이에서는 이승만의 동지회계가 세력이 컸다.

태평양전쟁 이전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전반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해 임정이 설립된 이후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미주의 한인단체들은 임정 지원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과 연결되었다. 그런 면에서 임정은 미주 내 각 단체의 권위의 원천으로 작용하였고, 반면 임정은 미주 한인단체들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어떤 면에서 양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다. 둘째, 미주의 한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내외 정세 변화, 특히 국제정세나 한인 독립운동의 고조와 쇠퇴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객거국(客居國)인 미국의 대일정책이나 사회여론의 추이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였고, 해외의 독립운동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셋째, 한인단체들 사이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들 수 있다.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양대조직은 국민회와 동지회였는데 이들은 1920년대 이후 계속 갈등 상태에 있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부분적으로는 노선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였으나, 한인 사회의 주도권과 재정권 장악을 위한 싸움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부터 미주 한인들에게 미일전쟁의 개시는 독립 쟁취의 결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발발 등 일본의 아시아 본토를 향한 침략이 본격화하자 해외 한인독립운동 단체들은 도래할 미일 개전과 그로부터 초래될 정세의 호전을 전망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경과하고 미일간 긴장이 고조될 수록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1941년 12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이 있기 6개월 전 중경 임정이 하와이 재미한족대회에 보낸 다음의 훈사는 이 시기 중국과 미주 독립운동계의 정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지금 미일전쟁의 폭발은 시간문제에 걸리어 있을 뿐이오 실현여부를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 사람의 머리 속에도 한국광복

의 중요성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귀한 기회를 잃지 말고 크게 활동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그들의 더욱 정확한 인식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들의 열렬한 동정과 힘있는 원조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획득하여야 하겠습니까.2)

이러한 고무된 분위기는 미주 한인단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후반 하와이에서는 한길수와 중한민중동맹이 새로 등장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고,3) 이승만 역시 중일전쟁 발발 이후 활동 중지 상태에 있던 구미위원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미외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또 북미주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뉴욕, 로스엔젤리스 등 각지 한인들이 중국 후원회를 결성하여 중국 피난민 구제를 위한 모금 활동, 일화배척 운동 등을 벌였고, 이들은 1939년부터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로 개편하여 독자적 활동을 모색하였다. 북미 국민회 역시 미주 한인들의 역량 집중을 내걸고 북미주 지역의 한인단체들을 국민회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고, 중경 임정과 중국 항일전쟁 후원을 위한 모금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4)

재미 한인사회의 역량 결집과 단체 통합은 미일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한인들의 독립 열기를 모아내고,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였다. 또 1930년대 후반부터 중국 관내에서는 한인 단체들 간에 통일전선운동이 강화되

2) 『태평양주보』 1941. 5. 31, 「재미한족에 대한 립정 훈사」

3) 중한민중동맹은 중국에 있던 若山 金元鳳系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길수가 이러한 연결관계를 이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정보보고서는 한길수계를 급진 세력으로 파악하였으나, 한길수의 활동방식이나 개인적 성향은 이러한 분류에 어울리지 않게 애매하였다. 그는 선동가적 기질이 강했던 인물로,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을 받기도 했다. 한길수에 대해서는 광림대, 『못잊어 華麗江山』 인물연구소(1973), 186-208쪽, 稻葉 强 「太平洋戰爭中の在米朝鮮人運動-特に韓吉洙の活動を中心に-」 『朝鮮民族運動史研究』 7(1991) 참고

4) 이 시기 미주 한인 사회와 각 단체의 동향에 관해서는 방선주, 「1930-40년대 구미에서의 독립운동과 열강의 반응」, 『한국독립운동과 윤봉길의사』, 매현 윤봉길의사 의거기념 제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1992); 고정휴, 「제2차 세계대전기 재미한인사회의 동향과 駐美外交委員部の 활동」, 『국사관논총』 49(1993);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1999) 참고

었고, 그러한 사정이 미주 한인단체들의 통합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⁵⁾ 하지만 이 무렵 재미 한인사회에서 통일전선운동과 단체 통합 요구가 강화된 데에는 객관 정세의 변화와 아울러 한인 사회 내부의 주체적 조건의 변화도 작용하였다.

우선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이 강하고 독립운동에 관심이 큰 이민 1세들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이들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결집할 필요성이 강화되었고, 반면 한인사회에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한인계 미국인들은 새로운 활력과 지도력을 요구하였다.⁶⁾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 한길수의 중한민중동맹과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등 상대적으로 젊고 급진적인 조류가 미주 한인사회에 등장하여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자,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를 양분해왔던 보수적인 국민회와 동지회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인단체 통합에 국민회와 동지회가 주동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젊고 급진적인 세력의 등장과 따라 자기 조직 및 한인사회 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도 크게 작용하였다.⁷⁾

재미 한인단체들의 최초의 연합기관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성이 단체들 사이에 합의된 것은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였다.⁸⁾ 이 회의에는 북미 대한인국민회, 동지회, 하와이 국민회, 중한민중동맹단

5) 1939년에 들어 중국 관내의 한인 독립운동단체의 좌, 우 결집체인 민족전선 진영과 광복진선 진영 사이에 통일조직 건설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8월 기강에서 양측이 모여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희곤·한상도·한시준·유병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1995), 122~123 쪽

6) 1930년대 초반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이민 1세대와 2세 한인들의 구성비율 변화, 이들 간의 의식 차이를 분석한 김도형,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1998), 206~208 쪽 참고

7) 한인 사회의 동정을 예의 주시하던 미국 정보당국은 1939년 이후 국민회와 동지회가 같이 일하기 시작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등 소수세력의 성장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Coordinator of Information, R&A Branch, Far eastern Section, Report No. 41,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2, 임정편 VII, 1993, 5~7 쪽. 이하 이 자료집은 ‘『운동사』 자료 번호’로 줄여서 표기.

8) 이전에도 하와이에서는 간헐적으로 단체 간 통합이 제기되었으나, 각 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행사 문제, 지도자들간의 개인적 반목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홍선표, 「1930년대 재미한인의 통일운동」, 「이승만의 통일운동-1930년 하와이 동지미포대회를 전후로」, 「1930년대 후반 하와이 한인의 통일운동」 참고, 각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1990), 11(1997), 12(1998)

대조선독립단, 한국독립당 하와이총지부,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연합회, 하와이 대한부인구체회가 대표를 파견하였고, 하와이와 북미주의 주요한 한인단체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대회는 세칙과 규정을 포함한 총 7개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독립전선 통일, 임시정부 봉대, 군사운동, 대미외교, 미국 국방공작 후원, 독립금 수합,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는 연합기관 설치의 7가지였다.⁹⁾ 이 대회의 결의사항은 이 시기 미주 한인사회의 공통적 지향을 집약하였다고 할 수 있고, 한인단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뒤에는 각 단체가 공유하는 상황적 배경과 참여한 각 단체 나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임정봉대를 살펴보면, 미일 개전이 점차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중국 관내와 미주 한인단체들은 임정이 가진 ‘임시정부’라는 조직위상에 기대를 걸고, 점차 임정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金元鳳·金奎植의 民族革命黨系가 臨政 내부로 들어오으로써 중국 관내의 한인단체들은 일단 臨政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다.¹⁰⁾ 이러한 사정은 미주도 예외가 아니었고, 미주내 한인단체들은 모두 임정 중심의 결집을 주장하였다. 중국 관내와 미주 내 한인단체들의 臨政으로의 결집에는 내외정세의 격화에 따른 역량결집과 통일행동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臨政이 이전부터 누려왔던 대외적 명성, 臨政에 대한 연합국의 정부 승인, 재정·군사원조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주 한인단체들의 임정봉대는 자신들 사이의 주도권 쟁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각 단체들이 임정의 권위를 빌어 자파의 주도권을 보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만약 임정의 중재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는 각 단체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9)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편, 『해방조선』 나성과 하와이(1948), 153~156 쪽

10) 1937년 中日戰爭 이후 중국 관내 한인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희곤, 「중일전쟁 이후의 임정: 제 정당의 변천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0; 胡春惠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단국대 출판부, 1978) 참고 民族革命黨은 조직적 기반인 朝鮮義勇隊의 상당수가 1939년과 1940년에 華北 延安으로 넘어가버려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재정난이 겹치는 등 내부적으로 조직유지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게다가 장개석 정부는 재정지원을 빌미로 임정과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의 臨政 進入에는 세계대전의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정부 형태의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정세판단도 작용하였다.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2, 211 쪽

임정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단체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군사활동과 적극적인 대미외교에 대한 강조 역시 미일전의 도래라는 정세 격화와 임정의 위상 제고라는 사정을 반영하였다. 박용만의 무장투쟁 노선이 재미 한인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뒤 외교노선이 미주 한인독립운동계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모든 단체가 군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최소한 군사활동과 외교의 긴밀한 결합을 주장하였다. 이 경우 군사활동이란 주로 중국의 대일전과 중국 관내 한인 독립운동단체의 군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였는데, 심지어 조선혁명당 미주지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역량 배합에서 외교보다 군사활동을 우위에 둘 것을 강조하였다. 미일간에 전쟁이 박두한 시점에서 임정이 연합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대일전 교전단체의 하나로 직접 대일전에 참전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과 군대가 필요했다. 여기에는 중국 관내에서 광복군의 창설 등 군사노선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일정하게 작용하였다.¹¹⁾ 미주 한인단체들은 종래의 소극적인 선전외교에서 나아가 무장부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연합국의 원조를 모색함으로써 군사활동과 외교를 결합하려 하였다.

군사활동 지원과 임정의 정부 승인 외교를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각 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각 단체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애국금 후원금 등의 형태로 모금활동을 강화하였고, 또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 이전보다 모금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선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던 한인 사회에 국제정세의 격화에 따라 통합의 분위기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정세변화를 독립의 호기로 받아들이던 한인사회의 고조된 분위기와 각 단체의 활동 강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대공황을 벗어나 경기를 회복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작용하였다. 초기 한인사회가 유학생과 하와이 노동자 중심의 미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있었다면,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의 한인사회는 초창기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많이 상승된 상태였다.¹²⁾

11)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 연구」, 195~196쪽.

12) 고정휴, 앞의 글, 230~234쪽 및 홍선표, 같은 글, 182~183쪽.

위원회의 활동노선을 집약한 위의 결의문을 보면 연합회는 단순한 교민단체가 아니라 독립운동 기관이었고, 재미 한인단체의 최고연합기관을 지향하였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의 결성은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재미 한인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이후 위원회의 활동이 보여주듯이 위원회는 1940년대 재미 한인독립운동이 처한 상황, 운동의 도달수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우선 위원회는 재미 한인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이었지만 근본적인 조직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모든 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한 통일적인 지도기관이 아니었고, 각 단체들의 일시적인 연합체에 불과하였다. 위원회 조직은 북미주의 집행부(執行部)와 하와이의 의사부(議事部)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여기에 배속된 위원들은 각 단체에서 선출한 대표들로서 이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 회원 단체들은 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제의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¹³⁾ 이러한 조직구조는 7천여명이 거주하는 하와이와 3천여명이 거주하는 미본토의 대표성을 적절히 분배하고,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합한 결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았으나, 국민회와 동지회는 그러한 권한 배분에 안주하였다. 이렇게 조직적 통일의 정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내에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권위와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곧장 조직 자체의 분열 위기로 연결되곤 하였다. 소속 단체들은 내부 분란이 있을 때 임정의 권위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은 성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시키곤 하였다.

위원회 활동의 중심은 아무래도 대미외교에 있었다. 위원회는 군사운동을 주요 활동노선의 하나로 내걸었지만 실 내용은 중국 내의 항일전쟁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미국의 대일전쟁 수행 원조도 그 실현가능성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태도와 대응에 달려 있었다. 반면 대미 외교의 활동 권한은 전적으로 미주 한인단체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 성과가 실제 임정과 미주 한인단체들의 위상에 중요한 의미를

13) 고정휴, 같은 글, 235 쪽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미 외교활동은 그 수행방식과 주도권을 둘러싼 위원회 내부의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위원회가 가진 권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미한인의 독립금을 모금하고, 그 자금을 관리, 배분하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그 모집과 관리,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¹⁴⁾

대미외교의 주도권 문제를 놓고 위원회 결성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해외한족대회에서는 단체 통합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을 새로 설립될 대미 외교기관인 주미외교위원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임정 측도 결국 이를 인준하였다.¹⁵⁾ 또 해외한족대회에서는 한길수를 ‘국방봉사원’이라는 애매한 직위에 임명했는데, 이는 당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한길수와 중한민중동맹단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미외교의 주도권을 둘러싼 위원회 내의 타협과 절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주로 대미외교활동을 독점하려는 이승만 측과 외교위원부의 문호 확대와 대미외교의 주도권 분할을 요청하는 다른 지도자, 단체들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최초의 갈등은 한길수의 탈퇴로 나타났다. 워싱턴에서 대미외교의 주도권을 놓고 이승만과 사사건건 충돌하던 한길수는 1942년 2월 위원회로부터 면직되었고 이후 중한민중동맹단은 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두번째 갈등은 주미외교위원부의 확대와 문호개방을 요구한 국민회 측과 이를 반대한 이승만 사이에 일어났다. 1942년 위원회는 로스엔젤리스에서 개최된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주미외교위원부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위원 2명을 새로 보강키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위원회가 이승만이 독점하던 외교위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였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이승만과 국민회 사이에 외교위원부 개조와 대미외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14) 이하 대미외교의 주도권 문제를 둘러싼 위원회 내의 갈등에 대해서는 고정휴, 같은 글 238~241, 257~274 참고

15) 주미외교위원부는 이승만 개인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임정은 대미외교기관의 책임자를 복수로 임명하여 재미 한인단체들 사이의 마찰과 이승만이 외교전권을 독점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지회의 반발로 위원회 결성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회 대표 김호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구성하는 절충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그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홍선표, 앞의 글, 207~209쪽

1942년 말 위원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하와이 의사부 선전원 전경무가 이승만과 외교위원부의 재조직과 장래 활동방향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국민회는 1943년 초 위원회에 이승만의 외교실패, 권리남용, 인심소란을 들어 이승만의 면직을 임정에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그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 열성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민중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위원회 측을 압박하였다. 이승만계와 국민회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1943년 5월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외교위원부의 정리 및 확장 문제를 일단 하와이 의사부에 맡겨 이승만과 교섭하였으나, 이승만은 외교위원부에 관한 한 위원회 측의 어떤 개입도 허용치 않겠다는 태도를 고집하였다. 그러자 위원회는 이승만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과 독자적인 워싱턴사무소 설립을 선언하였고, 이승만의 동지회는 1943년 12월 23일 위원회를 탈퇴하였다.

위원회의 분열로 재정이 곤란해진 임정은 1944년 8월 외교위원부 개조방침을 밝혔다. 임정은 외교위원부를 주미외무위원회로 개조할 것과 7인에서 15인에 이르는 복수의 위원으로 재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활동시한을 미국의 임정 승인 이전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호응해 하와이와 북미주 재미 한인단체 17개 중 13개 단체가 참여한 전체대표대회가 개최되었고, 외교위원 15인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임정은 동지회가 불참했다는 이유로 개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한 독자적인 대미외교위원회 인선을 공포했다. 이러한 임정의 결정 번복은 오히려 미주 한인사회의 분열을 촉진시켰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국민회의 반발을 샀다. 임정의 개조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국민회와 임정의 관계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국민회계는 1944년 4월 위원회 제3차 연례회의에서 연합위원회의 워싱턴 사무소 개설 의사를 고집하였고, 이에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한국학생연맹과 함께 연합위원회를 탈퇴하였다. 마침내 연합위원회는 1944년 6월 6일 워싱턴사무소 개소를 선언하였다. 194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는 주미외교위원부, 한족연합위원회 대표부, 중한민중동맹의 한길수가 각각 독자적으로 대미 외교와 선전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국제연합 창설을 논의하기 위해 1945년 4월 25일 개최하게 될 연합국 회의에 자과 대표의 참가권을 요구하였고,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주미외교위원부와 한족연합위원회는 각자 대표를 파

견하였다. 미일개전이라는 독립운동의 호기를 예상하면서 시작된 한인단체 통합 운동은 미일전쟁의 현실화에 따라 역량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시점에서 파국을 맞게 되었다.

2. 한인통합운동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자들의 반응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한인사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오던 미국의 정보당국은 한인 사회의 통합운동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한인단체에 대해 정보수집 이상의 관심을 보이곤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42년 중반 시점에서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¹⁶⁾ 극동국은 태평양전쟁 이후 중국 장개석 정부 군사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통합시켰던 사례를 들면서 미국 내 한인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¹⁷⁾ 한국 문제 담당자들의 이러한 의견은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표출되었고,¹⁸⁾ 이후에도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표하며 연합국이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한인조직의 조속한 발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¹⁹⁾ 미국 정부, 군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은 한인단체 통합과 독립 전선 통일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확인해주는 수준이었지만, 한인 지도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던 실무자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필요하다면 미국 측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미국 측 담당자들과 한인들의 접촉과정에서 한인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또 한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미외교위원부 개조와 문호 개방 요구를 둘러싸고 이승만계와 국민회계의 갈등이 한창이던 1943년 봄 마침내 한국문제 담당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인단체의

16) 미 육군 특무기관으로 CI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7) Situation Report No. 7, “Unification of Korean Independence Groups, OSS Far eastern Section,” 1942. 6. 15 (『운동사』 자료 22, 9쪽)

18) OSS R&A Report 41a, “Potentialities of Korean Help against Japan,” 1942. 4. 25(신복룡 『한국분단사자료집』 V, 원주문화사, 1991, 481~486쪽)

19) OSS/California Office,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Part I, 1943. 3. 24(『운동사』 자료 23, 431~435쪽)

통합과 관련해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1943년 5월 7일 해군부 정보국 요청으로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의 실무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미 한인 문제에 대한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육군부 정보국 동양담당 콜드웰(A. B. Caldwell) 중령과 그린웨이(George Greenway) 중령, 동 정보국 극동과의 키니(Robert Kinney),²⁰⁾ OSS 조사분석실 극동조의 조지 맥쿤(George M. McCune),²¹⁾ 연방수사국(FBI)의 킬만(Fred G. Tillman), 해군부 정보국 방첩과 동양담당 데이비즈(Donald M. Davies)였다. 이 회의는 연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 폐막 직전 시점에서 열렸으며, 미국 정부내 한국문제 담당 실무자들의 연합위원회 2차 회의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결산, 의견교환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을 통합하는 예비적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다음과 같은 통합방법을 제시하였다.²²⁾

: 韓吉洙를 고립시키거나 그의 돈을 끊어버린다 이경선²³⁾과 김원봉이 한길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한길수를 외국인등록법(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위반으로 몰아냄으로써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책임감 있고 믿을만한 한국인들에게 요청하여 망명정부와 비슷한 형태의 조직을 수립하게 한다. 여기에는 아마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임원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체에서 이승만은 그의 나이와 경력에 맞는 직함을 갖게 될 것이나, 실질적인 집행부는 보다 젊고 책임감 있으며 공격적인 한국인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한국인 기구에게는 권력 자체가 아니라

20) 키니는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하지의 경제고문 번스와 함께 미군정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실무자 역할을 하였다.

21) 맥쿤은 당시 한국문제에 관한 한 OSS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였다. 또 1944년 5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 책임자로 일하였다. 종전 후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해방 전후 미국 내에서 가장 잘 준비된 한국문제, 한국역사 전문가였지만 아깝게도 마흔의 나이에 요절하였다. 그의 경력과 활동, 학문 세계에 대해서는 C. Martin Wilbur, "George McAfee McCune(June 16, 1908-November 5, 1948),"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9, no. 2(1950. 2), 185~191쪽 참고.

22)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Army-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41-45, Korea, 상자번호 840, "Memorandum for the File, Conference on the Korean Situation," 1943. 5. 7

23) 민족혁명당 미주지부 회원이었고, 로스엔젤리스 근교에서 목사로 활동하였다.

상징적인 권한만을 주어야 한다. 최종적인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국인들 내부의 치명적인 암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전체회의 1차회의 무렵부터 OSS 본부 극동국에서 한국문제를 전담했던 조지 맥쿤과 OSS 캘리포니아 지부에서 한인 사찰을 담당했던 클라렌스 워스²⁴⁾는 중국과 하와이, 미주 본토 한인들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김원용, 유일환, 김용중 같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은근한 기대를 보내고 있었고²⁵⁾ 위의 권고안은 한국문제 담당자들의 그러한 상황인식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있게도 한인단체 통합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 한국문제 담당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1943년 가을 한인들에 의해 그대로 반복되었다.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둘러싼 연합위원회 내 국민회와 이승만계의 암투가 치열해지자 하와이 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이들 사이의 알력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와이 한족연합위원회는 이승만을 원로정치가로 대우하여 임정 외교부 고문으로 승격시키고, 주미외교위원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상은 이승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조하였지만 사실상 이승만을 일선으로부터 후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제안은 이승만을 격노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동지회를 연합회로부터 탈퇴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측도 주미외교위원부와 단절하고 워싱턴에 독자적인 외교기관 설치를 선언함으로써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사실상 와해되었다.²⁶⁾

이와 같이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담당자들의 통합구상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

24) 워스(Clarence N. Weems)는 개성에서 전도사업을 했던 목사의 아들이다. 1943년 3월부터 OSS 캘리포니아지부에서 일하였다. 1944년까지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對韓人工作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重慶에 건너가 臨政관계 공작을 담당하였다. 해방 직전 독수리작전의 준비에 참가하였다. 미군의 남한 점령 직후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와 군정장관 아놀드의 정치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오랜 공작경험으로 미주 내 한인들과 중경임정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해박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었고, 해방 이후 은근히 김규식을 지지하였다.

25) "Report on the First Session of the 1943 Conference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1943. 3. 17-19(『운동사』 자료 23, 436~452쪽); 「맥쿤이 워스에게 보내는 편지」 1943. 3. 15 및 「워스가 맥쿤에게 보낸 편지」 1943. 3. 29(『운동사』 자료 23, 478~479쪽)

26) 고정휴, 앞의 글, 263~264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정책에 나타난 완곡한 표현이나 요망사항과는 달리 한국관련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이 한인들 내부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인 단체가 미국의 의도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1차적인 활동목표를 두었다. 위의 담당자들의 논의는 미국이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은밀한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때 이들이 제일 먼저 고려하였던 것은 한국인 지도자·단체들의 정치적 성향, 지도자들의 대중적인 지명도와 각 단체의 실제 조직역량 등이었다. 또 한국인들을 이용할 때 실질적 권한을 한인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미주의 한인단체들에게 미국 측의 통합요구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으로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은 이러한 요청과 무관하지 않았다. 미국은 통합에 의한 역량의 극대화화 및 미국정부와 한인세력들 사이의 연락창구의 일원화를 원하였다. 위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인단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한인세력의 대표성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승만의 존재와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던 한길수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한길수를 제거하고 이승만을 한인세력들의 대표 자리에 올려놓으며, 연합위원회의 젊은 층들에게 실제 집행과 책임을 맡긴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 측 담당자들은 한길수파가 활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길수의 개인적 신뢰도와 급진적 성향을 문제삼아 보다 보수적 성향의 이승만을 통합의 중심으로 상정하였다. 미국은 어느 한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공식적 승인을 주는 따위의 행동은 피하고 있었으나, 한인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분화상과 경쟁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원이 문제가 될 때에는 효용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의 통합요구와 막후 개입은 한인들의 통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간섭과 개입이 오히려 한인들 사이의 관계를 교란시키고 통일을 방해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았다.

III. 재미 한인의 대미외교와 미국 정부의 입장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재미 한인단체들의 활동 가운데 대미외교 활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한인단체들은 임정의 정부승인을 목표로 미국 정부에 대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그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재미 한인단체들의 대미외교 활동의 일반적 양상을 임정과 연결된 이승만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관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승만의 임정 승인 외교

미일전쟁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중일전쟁 이후 이승만과 임정은 중국·미국에 대해 정부 승인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1941년 8월 루즈벨트, 처칠의 대서양헌장 발표, 9월 영국 정부의 프랑스·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한 승인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해외 한인독립운동 단체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또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이들에게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부추겨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따라 임정과 미주의 한인단체들은 연합국에 대한 정부승인 외교와 연합국의 전쟁노력에 대한 원조를 주요 활동방향으로 정하는 등 운동노선을 재정비하였고, 그 실현에 활동을 집중하였다.

1939년 이승만은 하와이로부터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겼고, 구미위원부 사무실을 개설하여 외교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는 이 무렵 중일전쟁의 발발과 예상되는 세계대전이 한국독립을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점과 ‘순수한 민족주의자’의 세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김구와 모종의 협정을 맺었다. 그 내용은 이승만이 임정을 해외망명 한국인들의 유일한 공식기구이자 김구가 그 법적 수반임을 인정하고, 김구와 임정이 이승만과 동지회의 지원을 얻는 대신 김구는 이승만을 주미외교위원부의 대표로 공식 임명하는 것이다.²⁷⁾

27)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as reflected in the Preliminary Session of the 1943 Annual Meeting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held in L.A." 1943. 3. 17 - 3. 19. 『운동사』 23, 430~477쪽. 이 문서의 작성자는 클라렌스 N. 워스이다. 이 자료는 해방전 후 金九와 李承晩의 관계를 잘 암시해준다. 이 당시 이승만과 그의 同志會는 國民會 在美韓族聯合委員會 측과 심한 알력 상태에 있었다. 이후 이승만의 외교대표권에 대하여 미주 내 다른 한인단체들이 수차에 걸쳐 반대하였지만, 그 때마다 김구가 나서서 이승만의 대표권을 확인하여 주었다. 또 이 당시는 김구로서도 미주 내 한인단체로부터의 재정원조, 한성정부의 법

이 무렵 임정은 미주의 한인단체들과 연합하여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임정 승인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임정은 자신이 駐在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부터 먼저 승인을 얻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 하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로비를 펼쳤다.²⁸⁾ 이승만도 중국의 승인을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교두보로 생각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국무부 극동국 관리들을 접촉하였다.²⁹⁾ 국무부에 압력을 넣기 위한 이승만의 외교는 1942년 3월 1일을 전후하여 워싱턴에서 개최된 自由韓人大會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이 시점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만들어진 직후로, 이 대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커다란 호응 속에 개최되었다.³⁰⁾

이승만은 국무부 극동국 관리들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韓美協會(Korean-American Council) 회장인 크롬웰을 통하여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을 접촉하였다. 이 당시 중경의 임정이나 이승만은 미국에게 임정의 정부자격 승인이 국내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對日抗戰을 낳을 것이고, 이미 중국과 미주 등지에는 효과적인 대일 연합작전을 펼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무기대여법(lend lease)에 의해 실질적인 군사·재정원조를 제공하라고 주장하였다.³¹⁾

헐은 이 문제를 하급 담당관리 벌(Berle)에게 떠넘겼고, 벌은 임정을 대일전에 동원하는 것은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성질의 일로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³²⁾ 이후에도 이승만은 국무부와 육군부를 계속 순례하였다. 그러나 국무부나 군부 모두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었을 뿐 끝내 임정의 승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³³⁾

통성을 들어 대통령 행세를 하던 이승만으로부터의 공식승인 모두 필요하였던 시점이다. 중일 전쟁 발발 이후 해외 독립운동단체들 사이에서 임정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이승만도 외교 활동의 명분을 임정에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계산하였을 것이다.

- 28) 하바드·엔칭연구소 귀중본 서고 소장, 피치문서철(Fitch Paper), 상자번호 4-2, 「조지 피치가 李承晩에게 보내는 서한」 1942. 1. 29
- 29)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art II, 1941-1945』(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 56~59쪽.
- 30) 자유한인대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미국 정부 및 일반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의 라파엣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31) 피치문서철, 상자번호 4-2, “Why isn't Korea recognized?”에 실린 1942년 5, 6월에 미 국무장관 헐과 한미협회의 크롬웰이 왕복한 서한들 참고.
- 32) 피치문서철, 상자번호 4-2, 「크롬웰이 신한민보 편집장에게 보내는 서한」 1942. 12. 31

당시 임정이나 이승만은 종래의 소극적인 선전외교에서 한발짝 나아가 무장부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 연합국의 원조를 모색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외교는 외부정세의 변화에 대처한 능동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외교사업은 인원·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³⁴⁾ 광복군의 활동도 초모사업이나 중국군 작전지원, 선전사업, 부분적인 첩보작전의 수행에 머문 채, 독자적인 작전 전개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이를 추진할만한 역량은 취약한 상태였다.

이들의 대미교섭 활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의 정세는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해내외를 불문하고 대동단결과 민족통일전선의 결성, 이를 통한 혁명역량의 결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외교적 방법에 의존하여 강대국의 승인을 얻어내려 하였다.

미국의 정가와 군부를 상대로 한 이승만의 로비는 집요하였고, 미국 외교가의 관계자나 언론계에는 잘 알려져 있었다.³⁵⁾ 그는 관련기관에 집요한 외교활동을 펼쳐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명성을 관련자들에게 심어주는 한편, 주위에 로비스트나 선교사와 같은 미국인 지원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거나 미국정부에 교섭케 하였다. 그에게는 미국인 로비스트와 영향력 있는 미국인들과의 교제가 주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특히 그의 한미협회는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을 위한 선전작업과 로비활동으로 미국 여론과 정가에 명성을 날렸는데, 이승만은 주로 이권거래를 통해 이들을 자신의 주위에 묶어놓을 수 있었다.³⁶⁾

이승만은 자신의 조직기반과 활동력을 과장하여 미국 정부에 접근하였다.³⁷⁾ 그

33) 미군부와 이승만의 교섭내용에 대해서는 방선주, 「美州地域에서 韓國獨立運動의 特性」, 『韓國獨立運動의 地域的 特性』,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7회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움(1993), 127~131 쪽 참고

34) 『운동사』 1, 465~466쪽

35) 앞의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art II, 1941-1945』 및 로버트T. 올리버 저·박마리아 역, 『리승만박사전』 합동도서주식회사(1956), 9장 참고

36)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RG 59, 국무부 일반기록물, 조사분석실 문서철 보고서 4977 호 「남한 이대통령의 미국인 사설고문단」 1949. 6. 8

37) 대표적으로 RG 59, 국무부 심진분류문서군, 한국내정문서철 1940-1944, "Offer of Korean Military Resources to U.S. Military Authorities" 1942. 10. 10 참고

러나 이러한 교섭방식은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의도만 미국 측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또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입장을 관철시킬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미·소간, 중·소간 이해관계의 상충, 전후 국내정세와 정파간 역학관계 등을 들어 미국의 후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즉 임정은 대미교섭시 중국이나 소련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임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암시를 거듭하여 표시하였고,³⁸⁾ 이승만의 反蘇선전은 노골적이었다. 특히 이승만은 종전이 다가옴에 따라 반소선전의 강도를 높여갔다. 1945년 4~5월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회의를 전후하여 이승만은 미국이 알타에서 소련에 한국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밀협약설을 언론에 흘려 반소선전에 열을 올렸다.³⁹⁾ 이승만은 자신의 경쟁자 혹은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세력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부쳤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절실히 요구되던 한인들의 역량결집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주내 한인단체의 통합에서 이승만이 끼친 분열주의적 행동의 해독은 심각한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942년 말 주미외교위원부를 확대개편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승만은 오히려 민중대회 등을 통해 연합위원회를 와해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연합위원회는 1943년 말 워싱턴에 독자 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선언하였다. 1943년 말 미주 한인단체들의 분열상은 극에 달했고, 이는 종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자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미교섭을 독점하였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임정의 정부자격을 승인 받음으로써 동시에 그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임정이나 이승만의 외교방식에 나타나듯 이들은 강대국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이것은 이 시기 각 세력의 활동이 독립과 동시에 전후 국내정치에 대한 구상과 연결을 가지

38) FRUS 1942, vol. I 「주중대사 고스가 국무장관에게」 1942. 2. 12; OSS 조사분석실(R&A Br.) 보고서 1028호, "Recent Korean Documents Relating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1943년 8월 신보통, 『한국분단사자료집』 V, 497~508 쪽

39) 로버트 T. 올리버, 앞의 책, 10장 및 『李承晩秘錄』 32~34쪽. 알타밀약설에 대한 이승만의 언론 활동은 미국 측 구도의 배후를 소련과 연결시켜 그의 반소반공선전을 관철시키면서, 사실은 미국의 의도를 떠보거나 그의 반대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OSS 조사분석실 보고서 3201호, 「한국: 이박사의 알타밀약설」 1945. 6. 25(『운동사』 22, 111~113 쪽)

며 전개된 측면 또한 없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종전이 가까워지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나 임정의 경우 정치적·이념적 분화가 잠복된 상태로 행동통일을 위한 견제와 내부적 모색이 계속되었다면, 국제정세나 미국 내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승만은 오히려 극우반공주의적 경향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⁴⁰⁾

2. 미국 정부의 임정 불승인 정책

재미 한인들의 임정 승인교섭에 대해 미국은 ‘① 국내에 기반이 없다 즉 지배 영토도 없고, 국내 인민의 신임을 확보하는 절차가 없었다 ②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 배타적 대표성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다, 즉 한인단체 사이의 분열과 알력이 심하다’는 점을 불승인정책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임정의 정통성이나 대표성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폴란드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망명정부에 대해서도 공식승인을 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태도는 일견 정책상 형평의 측면에서 일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망명정부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 태도를 규정한 것은 해당지역 정세의 불투명성과 각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였고,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⁴¹⁾ 루즈벨트는 망명정부에 대해 被占領地域 국가들의 전후 재건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⁴²⁾ 그러나 이러

40) 성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승만의 반소캠페인을 민주당을 난처하게 하려는 미국 공화당의 충동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소식에 접하자 그는 임정 국무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이승만의 면직을 제기, 통과시켰다(김학준 편·이정식 면담,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121~25쪽). 김성숙의 지적은 이승만에 대한 미국인 후원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암시하였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노골적인 반소·반공정책을 추구하던 공화당 극우반공주의자들은 종전 후 세력을 형성하고, 국무부의 對中·對韓 정책을 견제하게 된다 이미 이 시기에 이승만은 미국 내 정치의 흐름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맡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41) 프랑스 망명정부를 주도한 드골을 미 국무부는 극우민족주의자로 분류하였고, 그의 국수적인 성향을 우려하였다. 또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해서는 전후 유럽에 영국의 영향권이 부식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42) 이정식, 「중일전쟁 이후의 임정: 열강의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 『한민족독립운동사』(1990), 310쪽

한 전후해결책은 한국에 적용될 국제신탁통치안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신탁통치안은 한국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위와 같은 표면상 이유와 달리 미국이 임정의 정부승인을 거절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임정의 정부자격을 승인하는 것이 신탁통치안에 깔린 미국 측 의도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임정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경계하였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임정 내부가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즉 미국은 임정 내부에는 친미적 요소 뿐만 아니라 급진적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는 친미 자유주의적 성향 내지는 민족부르주아적 지향이 지배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고루하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차적으로 미국은 조기에 임정을 승인했다가 임정의 분열상, 협소한 지지 기반 때문에 향후 미국이 안게될 정치적 부담과 불이익을 우려했다. 미국은 한인포로에 대한 심문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된 한국관련 정보들을 통해 임정이나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배타적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국무부는 이승만계열이나 김구계열의 협소한 정치적 기반과 극우적 성향이 미국 측 의도를 관철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임정에 중국 측 영향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⁴³⁾

한편 미국이 제시하는 임정 不承認의 논거는 정부라는 조직형태나 기구에 맞는 실질적 조직내용과 활동력의 결여를 문제삼고 있었는데, 이는 미주 한인단체들이나 임정으로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간헐적으로 접하는 미국의 신탁통치안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후지위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우려할만한 것이었고,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세력은 ‘정부’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임정이나 재미 한인단체들은 협소한 조직기반이나 조직내용에 걸맞지 않는 조직형식으로 인해 실

43) NARA, RG 332 주한미군사령부 군사실 문서철 상자번호 7, 주한미군정청 외사과 작성 「임정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1946. 1. 18.; SWNCC 115,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Enclosure)” 1945. 4. 23(『한국분단사자료집』V, 64~74 쪽)

질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킬만한 추진력을 갖지 못하였다. 또 中國 關內나 미주 모두 한인단체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심하였고, 통일적 행동을 이룰 수 없었다.

IV. 재미 한인들을 활용한 미국의 대일 군사활동

재미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미일간의 전쟁을 그들의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한인 청년 중 상당수가 미군 특수부대에 복무하던가 또는 정부 각 기관에서 번역, 검열에 종사하였다.⁴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한인들이 미국 정부 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섭하였고,⁴⁵⁾ 심지어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일종의 의용군을 조직하여 미군 입소와 전쟁 참여를 호소하기도 하였다.⁴⁶⁾ 이러한 한인들의 활동을 배경으로 이승만 및 다른 한인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와 한인의 대일전 참여와 독자적인 한인부대의 창설을 교섭하였다.⁴⁷⁾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인단체의 대일전 참전 교섭은 한인사회의 고조된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한인들의 대일전 참여 노력은 미국의 ‘국방공작’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라는 측면과 함께 임정 승인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졌다. 즉, 참전 교섭은 임정과 미주의 독립운동계가 힘을 쏟았던 임정 정부 승인 외교의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더불어 각 한인단체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일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미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파 세력의 전후 지위를 다지려는 복안도 간직하였다.

44) 방선주, 「1930-40년대 구미에서의 독립운동과 열강의 반응」, 『한국독립운동과 윤봉길의사』, 매현 윤봉길의사 의거기념 제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92 353 쪽

45) 「김병현이 이승만에게 보낸 공식서한 93호」, 1942. 6. 25, 『운동사』 25, 119 쪽

46)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캘리포니아 한인 예비군(California's Korean Reserve)을 만들어서 미군에 입대시켜 주거나 극동 지역의 특수전에 참여시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캘리포니아 한인예비군의 Y. S. Kim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 1942. 6. 25, 『운동사』 25, 120 쪽.

47) 이 시기 미국 군부와 가장 활발하게 접촉하였던 이승만의 대일전쟁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정병준, 앞의 논문 94~102 쪽 참고

재미 한인단체들의 대일전 참전 양상과 이에 대한 미국 측 대응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시기가 미국 정부와 사회의 대한인식 형성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국에 대한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⁴⁸⁾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하였지만 금세기에 들어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 식민지로 전락하자 조·미 간 교섭은 사적 영역에서 양 국민들의 개별적 교류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 미국 조야(朝野)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 연구자가 ‘세 폭 짜리 병풍’이라고 묘사했듯이⁴⁹⁾ 외교관, 사업가, 선교사, 여행객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각종 견문기(見聞記)에 주로 의존하였다.⁵⁰⁾ 그러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정이 크게 변하였다. 미국은 대일전 수행의 필요에서, 또 전후 동아시아정책 마련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보 축적이 점차 절실해졌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조직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되었다

2차대전 발발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입안, 한국 및 해외 한인에 대한 정보 수집,

48) 전략정보란 거시적으로 지구상의 地理學的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49) Bruce Cumings, “Korean-American Relations: A Century of Contact and Half-Century of Relations” in Warren Cohen (ed.), *New Frontiers in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50) 태평양전쟁 이전 시기 서양인들의 저술에 나타난 한국 인식은 몇몇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한국인 없는 한국사’, ‘무역사성(historylessness)’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일제 강점 이전 한국을 방문했던 조오지 래드는 *In Korea With Marquis Ito* 라는 책에서 ‘한국의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에 의한 개혁은 무망’하다고 단언하였으며, 타일러 데넷은 *Americans in Eastern Asia* 라는 책에서 일제 강점 이후 한국에 대해 ‘일본에 의해 예인되어야 할 나룻배’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 시기 서양인의 한국 인식이 대체로 제국주의 지정학 이론에 지배되었음을 보여준다. 각종 견문기에 나타난 서양인의 한국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 김왕배 「은둔의 왕국: 한국학의 맹아와 선구자들」 『정신문화연구』 1999 가을, 통권 76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손철배, 「서양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3, 역사비평사(1999); 김백영, 「19세기말~20세기 초 서양인 여행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사회상」 (한국사회사학회 제83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98년 3월); 왕한석, 「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비습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1998); 백성현·이한우 공저, 『과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1998)

분석을 담당한 기구로는 국무부의 ‘전후 대외정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 이하 자문위)’와 산하 조사연구 기구,⁵¹⁾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합동참모본부(JCS, Joint Chief of Staff) 직속의 OSS, 육군 정보부(MID,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해군 정보부(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가 있다. 각 기관은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활동영역과 임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연방수사국은 주로 미국 거주 한인들의 동향 감시와 범죄·이적 행위 수사에 치중하였다. 반면 MID와 ONI는 방첩(Counter Intelligence)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미국 거주 한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도 하였지만, 대적첩보(Positive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산업 시설과 한국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에 치중하였다. OSS는 방첩활동에도 관계하였지만 첩보활동, 적후 비밀공작, 적국의 전쟁수행 능력 분석 및 각종 정보 분석 등에 치중하였다. 이 기구는 심리전(MO), 연구분석(R&A), 첩보부문(SI), 特攻(OG), 방첩(X-2) 등의 활동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OSS는 미주 한인 또는 한인포로와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를 이용해 한반도 침투작전을 준비하는 등 한인들과의 접촉면이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에 비해 넓었고, 또 상당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다.

미국 측 정보기관들의 정보원(情報源, Source)은 주로 선교사, 의사, 간호원, 광산기사 등으로 한국에 살았거나 최근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⁵²⁾ 그리고 유학생 등 재미 한인, 전장에서 잡힌 일본군 소속 한인 포로 등이었다.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한인들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이때에도 첩보대상물은 산업시설, 군사시설과 일본에 대한 한인들의 태도, 한인 지도자 등이

51) 자문위원회와 산하 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는 정용욱, 「1942~19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1996), 14~17 쪽 참고

52)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조선에 살았던 미국인들이 모두 강제 추방당했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이들이 상선 그림스호호에 승선한 뒤 이 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탐문보고서를 받았다. 정보 수집 대상은 주로 각종 산업시설(광산, 군수공장, 발전시설), 도로, 항만, 병원시설 등 군사적 목표와 일본의 지배에 대한 한인의 정치적 태도와 전쟁목적에 이들의 동원 가능성 등 국내 거주 한인들의 동정이 주가 되었다. 이 배는 1942년 8월 뉴욕에 도착하였다. 이 배에는 서울주재 미국 총영사 해롤드 쿼튼(Harold B. Quarton) 이하 직원들과 호레이스 언더우드 등도 탑승하였다. 특히 쿼튼은 국무부의 지시로 선상에서 “Report on Survey of Current Political Thought and Temper of the Korean People”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운동사』 25, 142~179 쪽의 쿼튼 보고서 및 아더 에몬스, 호레이스 언더우드, 알렉시스 존슨 등의 비망록 참고

었다. 또 미국 정보당국은 한국인들을 통해 재미 한인사회 내부 동정 및 해외의 한인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태평양전쟁의 전개에 따라 미국 군부는 한인들을 대일전에 동원하는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였고, 한인들의 동정 및 전쟁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해내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점차 중요해졌다. 일례로 1942년 10월 육군정보국 샌프란시스코 지부 선임장교인 캐롤 해리스(Carroll T. Harris) 중령은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던 전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에게 제안하여 「전쟁과 한국」(War and Korea)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는데, 미군 정보당국은 이 보고서가 극동에 대한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⁵³⁾

유일한의 사례는 재미 한인의 대일전 참여의 한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미 한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대일전 수행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은 동시에 한국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해의 과정이었다.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이승만, 한길수 등은 한국인들로 구성된 한인부대의 창설과 극동전선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적극 교섭하였고, 미국 정부와 군부는 한인들을 대일전쟁에 동원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⁵⁴⁾ 1942년 8, 9월 미국 육군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잠정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서 공식화된 결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독립운동단체들 가운데 어느 단체에 대해서도 대표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둘째, 지금 시점에서는 한인을 이용한 직접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그러나 한인들의 반일적 감정과 요소는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미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정부측 창구를 단일화하여 한인 독립운동(단체들)과 긴밀한 연결관계를

53) 이 보고서는 이후 확대되어 「한국: 동양의 또 다른 동맹국」이라는 제목으로 OSS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총 149쪽에다 5개의 부록을 가진 방대한 것이었다. 1943년 봄 유일한과 재미 한족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은 이 보고서의 출간을 시도하였으나 OSS는 출판을 만류하였다. 「유일한이 OSS에 제출한 보고서」 1943. 5. 8(『운동사』 25, 302~311쪽)

54)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Army-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41-45, Korea, 상자번호 840, War Dept. GS, MID G-2 “Memorandum for Chief of War Plans Division: Korea and Possible Action” 1942. 3. 4; G-2, S.S.G. JBW, “Conflicting Korean Groups and Individuals,” 1942. 3. 3 및 G-2, S.S.G. JBW, “Korean Rivalries and Personalities,” 1942. 3. 6(『한국분단사자료집』 V, 53~57쪽)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인들의 정보수집과 전복활동 등을 대일전에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후 한인들의 자치정부 수립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⁵⁵⁾

1944년 후반에 들어 한인들을 이용한 직접행동을 계획하게 됨으로써 위 방침의 둘째 조항에 수정이 가해지지만, 한인단체의 대표권 승인문제와 한인 내지 한인단체의 대일전 동원을 분리시켜 적용한다는 공식입장은 종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주의 한인 정치세력들은 일찌감치 대일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었고, 한인들의 활용 가능성을 미국 측에 계속 선전·타진하였다. 이에 비해 1944년 후반 이전 오히려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보였던 것은 위와 같은 미국정부의 방침과 戰況 때문이었다. 미국은 전쟁의 추이와 한인들 내부의 정치적 동향을 보며 이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선택과 실행방법을 저울질하였다.⁵⁶⁾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자신에게 유리해지고 한반도에 대한 직접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44년 후반부터 한인들을 이용한 직접행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45년 전반 OSS는 해외 한인사회의 분포양상과 각각의 사회·정치적 조건, 활동성, 한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작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작성된 문서에서는 그 이전 전쟁정보처(OWI, Office of War Information)⁵⁷⁾에서도 한인포로들을 ‘노무·첩보·선전·군정복무’에 이용할 수 있게 정밀 조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⁸⁾

55) Joint U.S. Intelligence Committee, “JIC 40, Recognition of a ‘Free Korean’ Organization,” 1942. 8. 5(이길상 편, 1992 『해방전후사자료집』 I, 원주문화사, 7~13 쪽; JCS 73, 1942. 8. 8; WD No.1201, From WD MID G-2, to AMMISCA Chungking China, 1942. 8. 15; “Memorandum for Admiral Leahy, Gen. Marshall, Admiral King” 1942. 9. 23 (『한국분단사자료집』 V, 58~63쪽)

56) 1944년 후반 이전에도 미국은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기초 위에서 한인들을 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인단체와 접촉을 유지하였다. 정부 내 각급 정보기관이나 선전기관 군부에서는 대일전 수행에서 한인들을 선전사업이나 첩보수집, 파괴공작 등의 특수임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한인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SWNCC 115,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Enclosure),” 1945. 4. 23; OSS R&A 보고서 41a, “Potentialities of Korean Help against Japan,” 1942. 4. 25(『한국분단사자료집』 V, 481~486 쪽)

57) 전쟁정보처는 2차대전 중 미국의 대내외 선전기관으로 이후 OSS로 통합되었다.

58) “PG 108/1, Implementation Study for the Over-all and Special Programs for Strategic Services Activities Based in China: Korea,” 1945. 5. 15(『운동사』 21, 173~246 쪽)

OSS는 한걸음 나아가 미국에 거주하던 한인들과 태평양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한인들, 중국에 있던 광복군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침투작전을 준비하였다. 워싱턴 본부에 의해 기획된 냅코작전, OSS 중국 지부에 의해 기획된 독수리작전, 버마·인도전구의 OSS 101지대에 의해 기획된 북중국작전이 그것이다.

냅코작전(NAPKO Project)은 미국의 한인들과 태평양지역에서 포로가 된 한인 병사들 가운데에서 요원을 선발하였고,⁵⁹⁾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은 광복군 2지대, 3지대에서 인원을 선발하였다.⁶⁰⁾ 이 두 작전은 모든 훈련과 준비를 마치고, 작전개시를 기다리던 중에 종전을 맞았다. 북중국작전(North China Project)은延安의 한인들을 동원하고, 한반도 침투에 만주지역의 한인 빨치산부대와 북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이용한다는 방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⁶¹⁾

이들 작전에서 OSS는 작전의 지휘, 장비보급과 병참지원, 활동자금 지원을 맡고,⁶²⁾ 한인들은 공작원으로 국내에 침투하여 주로 정보수집 활동에 종사하기로

59) 냅코작전의 개요와 참여했던 한인들에 대해서는 방선주, 「미주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특성(OSS NAPKO)」,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 회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움, 1993

60) 독수리작전의 전모에 대해서는 SI Branch OSS China Theater, “(Top Secret)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1945. 2. 24(『운동사』 22, 243~272 쪽 참고) 한국인 참여자들이 남긴 자료로는 장준하, 『돌베개』 사상사(1971); 김준엽 『長征』 나남출판사(1987); 韓光班學兵同志會, 『長征六千里』(1979); 김두전, 「韓國光復軍과 美國 OSS의 共同作戰에 관한 研究」,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1992) 등이 있다

61) 북중국작전에 대해서는 방선주, 「아이프러기관과 재미한인의 북국운동」, 『제2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해방 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및 Lieut.(sg) Guy Martin, Dr. Charles B. Fahs, Major Phillip K. Crowe, Major Joseph E. Spencer, Lieut. Thomas J. Davis, OSS New Delhi, India, “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 Draft Proposal for a Major OSS Secret Intelligence Operation in North China and from North China into Manchuria and Korea”와 부속문서(『운동사』 22, 693~721쪽) 참고 북중국작전은 OSS 뉴델리지부에서 발의하여 중국 戰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1945년 5월 워싱턴의 OSS 본부 기획단에서 검토되었다. 이 작전은延安에 기지를 두는 북중국의 주요 첩보조직 수립이 목적이었는데, 계획안만으로는 3개의 작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특히 북중국의 공산주의적 조직들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을 이용한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이용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흥미 있다.

62) 어느 작전에서나 제정과 병참에 대한 통제는 한국인들을 제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원칙을 고수하였다. 앞의 SWNCC 115 참고

되어 있었다. 이들의 주활동목표는 정보수집이었으나 그 외에도 국내 지하조직과의 연결, 사보타지, 파괴활동, 연합군 상륙에 대비한 선전활동, 소요 준비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군은 이 작전에 영국이나 중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작전을 독점하고자 하였다⁶³⁾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한인의 전시동원이 순수한 군사적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미래의 정치적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는 한인의 동원과 이용에 대해 정치적 의미부여를 피하였고, 전시의 당면한 군사적 필요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공식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리고 동원되는 한인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대표성도 부여하지 않은 채 개별적 기초에 의해 이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임정과 미주의 한인단체들은 공동군사작전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대미 정부승인 교섭을 벌였지만 미국으로부터 끝내 교전국 정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미주 지역의 한인단체 한인들이 미군의 대일 공동군사작전을 한국인들이 미군과 함께 반파시즘투쟁에 동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미국 역시 한인 독립운동단체들을 반파시즘투쟁을 위한 동맹세력으로 간주하였고, 미국의 공식입장은 이 단체들을 대일전에 동원하여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해외의 모든 한인단체들이 가능한 빨리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철저하고, 그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방법과 수립되어야 할 정부의 정확한 형태라고 평가하였다.

종전이 가까워오면서 미국 국무부는 한인단체들에 대한 종래의 공식적 태도, 즉 모든 한인단체들을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개별적 기초에서 이들을 대일전에 동원한다는 태도와는 달리 미국의 주도 하에 한인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무부는 1945년 4월 미주지역의 한인들과 태평양전쟁에서 미국 측에 포로로 잡힌 한인들을 독립 전투부대로 편성하여 전투에 참여시키는 안을 삼부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국무부가 이 안을 제출한 동기는 한국인 부대의 전투 참여가 對日戰에 매우 큰 선전가치가 있다는

63) 『운동사』 22, 619-639, 663, 668-669쪽의 영국 군사고문단 스테이블 대령 방문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와 전문들. 미국은 영국의 접근을 중국군 정보계통 책임자 타이리(戴筠)의 책동으로 파악하였다.

점, 시베리아에 있는 한인사단이 전후 한반도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것에 조직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⁶⁴⁾

이에 대해 육군부는 계획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하나 군사적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육군부는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사적 견지에서 효율적인 한국인 전투부대를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국무부에 전달하였다. 대신 육군부는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 군사부대보다 종전과 같이 선택된 한국인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⁶⁵⁾ 국무부의 시도는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나 종전이 가까워오자 미국 정부가 정치적·이념적으로 미국에 친화성을 갖는 한인세력의 조직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 미국은 한반도 신탁통치라는 자신의 전후 대한정책과 배치되는 어떠한 정치적 연루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한인 단체들을 독자적인 교섭 대상, 또는 교전단체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미 한인들을 개별적 기초에서 당면한 일본과의 전쟁에 적극 이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V. 맺음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그 이전의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이 시기에 이르러 하와이, 미주 본토의 한인 사회 어느 곳이나 노동자 위주의 열악했던 이민 초창기 경제상태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된 데에다 그 내부구성에서도 한인 2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한인사회 자체가 성장하였다. 또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어느 것이나 미일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해외의 한인독립운동계는 가까운 장래에 미일간에 전쟁이 개시되리라 예상하였다. 재미 한인단체들은 미일전쟁의 개시를

64) SWNCC 115,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Enclosure)"(『한국분단사자료집』 V, 64~74쪽)

65) SWNCC 18차 회의,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Agenda Item No. 4-SWNCC 115)," 1945. 5. 18; SWNCC 115/1 Enclosure, "Memo.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War," 1945. 5. 29(모두 『한국분단사자료집』 V, 75~76쪽)

독립의 결정적 계기로 파악하였으며, 한인 사회의 성장과 정세 격화를 배경으로 1930년대 후반 이후 단체 통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시기 미주의 한인독립운동은 그 이전 시기와 다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전 한인단체들의 활동이 한인 사회의 교육이나 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거나 미국 조야를 향해 한국 독립의 대의명분을 선전하는 선전외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시기에는 미국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임정 승인 외교를 펼치는 한편 미국의 대일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일투쟁을 펼쳤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주에서 결성된 최초의 연합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이었다. 그런 면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거는 미주 한인사회의 기대는 컸으나, 주도권과 재정권 장악을 둘러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산하 단체들의 갈등과 알력으로 한인사회의 단결과 역량통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단체 통합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한인단체들의 분열로 임정 승인 외교 대일전 참전 어느 것이나 한인들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

태평양전쟁 이전만 해도 미국의 한국 및 한국 독립운동 일반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였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었다. 193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 친화적인 동아시아정책을 유지하였고, 미국의 주된 관심은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 실현에 있었다.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은 독립을 유지할 자격과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한국에 동정적인 선교사 등 몇몇 미국인들만이 한국 독립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태평양지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관계도 점차 악화되었다. 미국은 2차대전의 발발 이후 전후 아시아 본토, 태평양 연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적 진출을 예비하기 시작하였다. 또 그런 맥락에서 아시아 민족운동 전반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고, 미주와 중국 관내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해서부터 새로운 대한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절실했고, 해외 한인, 특히 미주 한인사회는 미래의 정책 구상을 위해서나 당면한 대일전 수행을 위해서나 유용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이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전후 한국의 지위와 관련한 전략정보였고, 다음으로 전후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해내외 독립운동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했다. 또 당면한 대일전에 한국인을 이용하는 문제 역시 중요했다.

이 시기 미주 한인단체들은 임정의 정부 자격 승인을 대미 외교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인들을 미군과 함께 대일전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표 자체는 중국 관내와 미주 한인 독립운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임정이나 재미 한인단체들의 단결된 역량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임정 불승인, 한인단체들의 교전단체 불인정의 근거로 한인단체들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사실은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라는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으나, 어쨌든 미주의 한인독립운동계는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통일된 역량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태평양주보』

신복룡 편, 『한국분단사자료집』 V, 원주문화사, 1991.

이길상 편, 『해방전후사자료집』 I, 원주문화사, 199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1, 임정편 VI, 199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2, 임정편 VII, 199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3, 임정편 VIII, 199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5, 임정편 X, 1994.

Department of State, US,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art II, 1941-1945』(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 1987.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 소장 자료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Army-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41-45, Korea, 상자번호 840, War Dept. GS, MID G-2 “Memorandum for Chief of War Plans Division: Korea and Possible Action” 1942. 3. 4.; “Memorandum for the File, Conference on the Korean Situation,” 1943. 5. 7.

- RG 332 주한미군사령부 군사실 문서철, 상자번호 7, 주한미군정청 외사과 작성, 「임정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1946. 1. 18.
- RG 59, 국무부 일반기록물, 조사분석실 문서철, 보고서 4977호 「남한: 이대통령의 미국인 사설고문단」 1949. 6. 8.
- RG 59, 국무부 십진분류문서군, 한국내정문서철 1940-1944, “Offer of Korean Military Resources to U.S. Military Authorities” 1942. 10. 10.
- 하바드·엔칭연구소 귀중본 서고, 피치문서철(Fitch Paper)
 상자번호 4-2, 「쥬지 피치가 李承晩에게 보내는 서한」 1942. 1. 29.
 상자번호 4-2, “Why isn't Korea recognized?”
 상자번호 4-2, 「크롬웰이 신한민보 편집장에게 보내는 서한」 1942. 12. 31.
- 고정휴, 「제2차 세계대전기 재미한인사회의 동향과 駐美外交委員部の 활동」, 『국사관논총49, 1993, 221~277쪽.
- 곽림대, 『못잊어 華麗江山』 인물연구소, 1973.
- 김도형,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1998, 202~236쪽.
-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캘리포니아 리들리, 1959.
- 김준엽, 『長征』 나남출판사, 1987.
- 김학준 편·이정식 면담,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 김희곤·한상도·한시준·유병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 아시아문화사, 1989.
- 로버트 T. 올리버 저·박마리아 역, 『리승만박사전』 합동도서주식회사, 1956, 9 장
- 장준하, 『돌베개』 사상사, 1971.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편, 『해방조선』 나성과 하와이, 1948.
- 韓光班學兵同志會, 『長征六千里』 1979.
- 胡春惠,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단국대 출판부, 1978.
- 홍선표, 「1930년대 후반 하와이 한인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195~227 쪽.
-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1999, 173~213 쪽
- 稻葉 强, 「太平洋戰爭中の在米朝鮮人運動-特に韓吉洙の活動を中心に-」, 『朝鮮民族運動史研究』 7, 1991.
- Bruce Cumings, “Korean-American Relations: A Century of Contact and Half-Century of Relations” in Warren Cohen (ed.), *New Frontiers in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237~282쪽.

C. Martin Wilbur, "George McAfee McCune(June 16, 1908-November 5, 1948),"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9, no. 2(1950. 2), 185~191 쪽

주요어

이승만, 한길수, 국민회, 동지회